

# 조선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 '총괄 총장제'로 통합 본격화

### 웰에이징 특화형 글로벌대학 선도 단일 거버넌스 구축 대학통합 추진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가 '총괄 총장제 협약식'을 개최하며 단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 추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조선대 본관 이사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을 비롯해 김춘성 조선대 총장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 문인섭 조선이공대 기획처장, 김기숙 광주시교육청년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3개 대학의 2025년 총괄 총장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 조선이공대와의 통합 기구 구성, 조선간호대의 통합 신입생 모집까지 이어지는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3개 대학은 조선대의 글로벌대학 비전인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핵심 실행 과제인 웰에이징 3대 특성화 교육혁신, 빅데이터 기반 테스트베드 지식학 협력 모델 구축, 글로벌 자회사 등을 통한 글로벌 확산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고령친화산업, 광주AI데이터센터 및 기업실용웹툰지원센터와 연계해 글로벌 거점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은 "총괄 총장제를 기반으로 한 이번 협약은 '웰에이징 중심 대학'으로 향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조선대가 글로벌대학 30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가 최근 '총괄 총장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박명희(왼쪽부터)조선간호대 총장, 김기숙 광주시교육청년국장, 김이수 조선대이사장, 김춘성 조선대총장, 문인섭 조선이공대 기획처장. <조선대 제공>

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대 김춘성 총장은 "광주광역시의 높은 관심이 든든하다"며, "무엇보다 각 대학 총장님들의 협조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고의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조선대는 2024년 이후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글로벌 취·창업 협력, 광주상공회의소와 청년일자리

협약, 광주과학기술원과 의대학원 공동학위, 완도군과 해양치유 융합 프로그램 협력, 유림 KEMST와의 에이지테크 연구 협약 등 다양한 지식학연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인 산하 대학과의 유기적 통합과 협력을 통해 '웰에이징 특화형 글로벌대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초등생 '동네 한 바퀴' 시작

### 지역-대학 연계, 독서·기후환경·AI 등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마련한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교육청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글로벌 리더' 사업의 하나다.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에 따라 배움과 활동 범위를 동네(동네 한 바퀴)-전국(팔도 한 바퀴)-세계(세계 한 바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세계 한 바퀴'를 출발한 데 이어 21일에는 올해 첫 '동네 한 바퀴'를 시작했다. 동네 한 바퀴는 11월까지 지역, 대학과 연계해 2천5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공동체 의식, 문화 다양성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프로그램으로는 호남대와 연계해 'AI로 디지털 그림책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하남중앙초를 포함해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보건대 등 6개 대학에서 글로벌 민주시민을 위한 독서능력 함양, '출'으로 '세계'를 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 AI로 디지털 그림책 만들기 등을 배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1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전남지역 사적, 과학관, 미술관, 문화전당, 미디어센터 등을 방문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제, 장소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주제에 따라 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는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광주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인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1일 '동네 한 바퀴-호남대학교 연계 AI디지털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남중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대·호남대 연합 '글로벌대학 30' 도전

### '공동입시·표준 행정·무경계 학사 개방' 등 혁신안 마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글로벌대학 30' 공모에 광주대와 호남대가 연합 모델로 도전한다. 양 대학은 '공동입시, 표준 행정, 무경계 학사 개방' 등 파격 혁신안을 마련했다.

광주대(총장 김동진)와 호남대(총장 박상철)는 지난 18일 호남대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대학30' 추진을 위한 '연합대학 선포식'을 열었다.

양 대학은 지역 상생의 중심축으로서 실질적인 지식·학 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대학 '대표 총장제'를 도입,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한 강력한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한다.

기존 '글로벌대학 30 연합형' 모델이 가진 형식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다.

연합대학은 광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청년 고용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 총장과 박 총장은 문화도시 광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 '창조문화 허브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공동의 포부도 밝혔다.

김 총장은 "두 대학의 연합은 광주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확장하고,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서



의 광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양 대학이 보유한 AI 및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활용해, 노동시장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특화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는 교육부의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연합형 유형에 가신정을 완료했으며, 연합대학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탄소중립 실천활동 강사' 모집

### 동신대, 28일까지 방문·메일 접수

동신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상득)가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탄소중립 실천활동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농업, 축산, 생애주기별, 폐기물, ESC 등 크게 5개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선정된 강사들은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자발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펼치게 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업분야에서는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기술과 논 메탄 저감기술(논 물 관리, 논 유기물 관리)에 대해 ▲축산분야는 장내발효 저감 기술, 저탄소 사료, 질소저감 사료 기술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생애주기 교육 분야는 탄소중립의 중요성, 환경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 녹색생활실천에 대해 ▲폐기물 분야는 자원재순환 생활실천 캠페인, 불법소각, Up-cycling 등에 대해 ▲ESG분야에서는 ESG의 개념과 중요성, ESG 적용 분야, ESG 실행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방문과 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내용은 동신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경북 초등생들 '원격화상수업' 함께 한다

### 학급 1대1매칭 공동교육과정 운영

전남·경북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서 만나 함께 수업을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과 경북지역 12개 초등학교 학급을 1대 1로 매칭해 내년 2월까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30 원격화상수업은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2030교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온라인을 통해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고 공간을 초월한 협력학습을 실현하는 미래형 수업 모델이다.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은 영호남 협력의 상징성과 함께 지역과 학급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초등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남교육청

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나누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기반의 공동 수업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다.

지난 17일 전남·경북 학급 간 원격화상수업 온라인 만남의 날을 가졌다. 참여 교사들은 이를 통해 수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김병남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경북 학급 간 원격화상수업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남과 경북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연결과 협력을 통해 상호 존중과 공감의 문화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